

이겨내고 읽어내라... KIA 투트랙으로 현재·미래 '동시에'

'제구 난조' 최지민, 퓨처스행 대신 1군서 '위기 극복' 특명 '기대주' 1군 훈련 경험으로 전력 확인하고 동기 부여



KIA 타이거즈가 투트랙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는다. LG 트윈스와 시즌 9차전을 치른 20일 KIA는 포수 권혁경을 챔피언스필드로 불렀다.

권혁경은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했고, 다케시 배터리 코치의 지도 아래 수비 훈련도 소화했다.

엔트리 등록은 아니지만 육성과 성적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한 KIA의 밑그림이다.

이범호 감독은 "토, 일요일에는 이상준도 부를 계획이다. 퓨처스에서 못 올라왔던 선수들을 불러서 어떤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우도록 할 생각이다"며 "2-3일 1군 선수단에 있으면서 분위기, 운동하는 것을 보고 나면 퓨처스에서 준비하는 방법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군에서 포수가 부상 등으로 빠지면 기용해야 하는 선수들이다. 후반기에 써야 할 선수들 같은 경우 1군 와서 분위기를 익히게 하려고 이번부터 포수들부터 시작을 했다"며 "또 언젠가는 팀의 주축이 되어야 할 포수들이다.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배터리 코치한테 보여드리고 장점 단점 파악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1군 훈련 후) 퓨처스 갔을 때 어떤 부분 집중해서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KIA는 우승을 위해 144경기 장기 레이스를 펼

쳐야 한다. 9월에는 엔트리도 확대되는 만큼 미리 '기대주' 들을 점검해 빈 틈이 생기면 채우고 또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몰입'인 셈이다.

이범호 감독은 치열한 1군 무대에서 강하게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대상은 좌완 최지민이다. 팀의 막강한 불펜으로 활약했던 최지민은 최근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진이 계속되자 이범호 감독은 과도구 사제처럼 퓨처스리그에서 차분하게 재정비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1군에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좌완 이준영이 팔꿈치가 좋지 않아 20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등 KIA 불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범호 감독은 "요즘 컨트론키가 잘 안돼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필승조로 써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퓨처스에 내려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영이 상태가 안 좋아서 최지민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내려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감도 잃지 않을까 어려가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컨트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코칭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겨나가야 한다. 이겨나가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1군에서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 안 좋은 모습도 이겨내 줘야 한다"며 "필승조로 팀을 이끌어갈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고 파트너로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IA 타이거즈 좌완 최지민이 1군에서 '위기 극복'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골·골·골! 광주FC 코리아컵 8강 진출

부천FC1995 상대 3-2 승리

내달 17일 성남FC와 4강행 대결

주축 멤버들을 내세운 광주FC가 코리아컵 8강에 진출했다.

광주가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1995와의 코리아컵(구 FA컵) 16강전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15일 김천상무와의 K리그1 17라운드 경기에서 머리로 결승골을 장식했던 박태준이 기세를 몰아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반 7분 이견희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문전으로 달려들던 박태준에게 공을 넘겼다. 컷백 패스를 받은 박태준이 오른발로 때린 공이 그대로 부

천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에 관여했던 이견희가 전반 31분 득점까지 만들었다.

부천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빌드업을 하다가 중원으로 공을 띄웠다. 광주가 중간에서 머리로 공을 낚아챘다. 이어 공을 잡은 이견희가 왼발로 슈팅을 하며 부천 골대를 갈랐다.

2분 뒤 다시 한번 이견희가 공격을 이끌었다.

중원에서 공을 몰고 전진한 이견희가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로 침투한 가브리엘에게 공을 넘겼다. 골키퍼를 마주한 가브리엘이 공을 띄워 김형근의 킷을 넘기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3-0으로 맞선 전반 40분 부천 황재환에게 골을 내준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다시 한번 실점을 기록했다.

부천 바사니가 프리킥 상황에서 때린 공이 그대

로 광주 골대로 빨려 들어갔지만 이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가 승자가 됐다.

서울, 김천상무와의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기록한 광주는 코리아컵 승리를 더해 3연승에 성공했다.

광주는 7월 17일 오후 7시 성남FC와 코리아컵 4강행을 다룬다. 성남은 16강전에서 충북청주와 1 골씩 주고받은 뒤 승부차기 접전 끝에 5-4 승리를 거뒀다.

한편 김두현 감독 체제로 새로 꾸린 K리그1 전북 현대는 K리그2 김포FC에 8강 티켓을 내렸다.

전북은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와의 경기에서 0-1 패배를 기록했다.

전반 3분 김포 브루노가 이종호가 오른쪽에서 넘긴 공을 헤더로 떨쳤다. 바운드 된 공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1-0이 됐다. 이 골은 이경희의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이 되면서 김포가 1-0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의 박태준이 K리그1 17라운드 김천상무전에 이어 부천FC와의 코리아컵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순위 싸움의 새 동력으로 떠올랐다. (광주FC 제공)

'적응 끝' 박태준, 광주 순위 싸움 '핵심'으로

올 시즌 광주 이적 후 연일 골잔치 "내 장점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예열을 끝낸 박태준이 광주FC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탠다.

광주는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코리아컵(FA) 16강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일 FC서울과의 K리그1 16라운드 경기를 2-1로 승리로 장식했던 광주는 앞선 15일 안방에서 전개된 김천상무전도 2-0으로 이겼다. 리그 연승으로 분위기를 탄 광주는 코리아컵까지 3연승에 성공했다.

박태준이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박태준은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30분 정호연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부천과의 코리아컵의 선제골도 박태준이 만들었다.

전반 7분 이견희의 컷백 패스를 받은 박태준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이후 광주는 이견희와 가브리엘의 골을 더해 3-2로 이기며 8강 티켓을 획득했다.

박태준은 5월 15일 '대어' 울산 사냥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날 박태준은 선제골과 함께 이강현의 골을 도우며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2-1 승리를 이끌었다.

성남FC와 FC안양에서 활약했던 프로 7년 차 박태준은 올 시즌 광주에 새 동지를 틀었다. 새 팀에

서 적응의 시간을 보낸 그는 눈길씨는 활약을 하면서 광주 박태준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박태준은 "아직 내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더 뜨거운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김천상무전 결승골을 장식했던 그는 "경기력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후반에 들어가서 골 넣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며 "내가 급한 게 있었다. 더 여유롭게 해야 했다. 급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패스를 넣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전술적으로 많이 적응했는데 아직 내 장점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쉽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패스를 날카롭게 넣거나 예측 못할 때 패스를 하는 게 장점인데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히 더 그런 장점을 보여드리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즌 초반에는 새로운 전술을 익히느라 시행착오도 있었다.

박태준은 "초반에는 전술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많이 해냈다. 전술적인 게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기도 했고, 전술 안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더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아직 조금 덜 입혀진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재미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결과도 결과지만 올 시즌 '과정'도 박태준에게 의

미 있다. 박태준은 성남 시절 인연이 있는 이정호 감독과 재회해 또 다른 축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태준은 "한결 같다. 멋있고 화도 많고(웃음). 그렇지만 뒷끝은 없고 쫓대고 멋있다. 코치님으로 계시는 때와 다른 면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감독님으로 전술적인 부분은 타팀에서 봤을 때도 색달랐다. 많이 배워보고 싶고 재미있어 보였다"며 "잘하실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할 지 몰랐다. 매력적인 축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매일 새로운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 머리에 넣어야 할 것이 많다. 매일 미팅하고 연습하다보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다. 감독님도 매일 미팅을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 세뇌가 되게 하신다.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선수들도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고 "정호불"을 이야기했다.

박태준은 하던 대로 광주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다.

박태준은 "팬분들도 응원해주시고 (광주석에) 내 유니폼도 보인다. 기분 좋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하겠다. 매 경기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발전하다보면 팀도 더 좋은 순위로 가 있을 것이다"고 발전의 시즌을 이야기했다.

한편 박태준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탄 광주는 22일 오후 7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1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리그 3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